

위원장	학교장
이지풍	박찬국

2023년 제3회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회의명	제3회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3.8.14. 11:30 구이 모악애플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이지풍 남혜진 이진석 소창섭 박찬국 이성일 김영천 (8명 중 7명 참석)
상정안건	
1. 학교설립인가 변경 및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변경 (안)	

간사 박미성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득히 국민의례는 생략하며,

이어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장님 말씀 및 개회 선언과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장 박찬국

위원님들 학교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특목고지정취소와 관련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시다시피 8월3일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심의보류가 나왔고 이후 8월7일(월) 16시에 전주예술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관련 회의를 교육청에서는 예산과장, 사학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등이 참석했으며, 학교쪽에서는 설립자, 이사, 법인관계자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지풍

좋은 학교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교장선생님 비롯 선생님들이 계시니 저희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입장은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인원 9분 중 7분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차 회의록 승인이 있겠습니다.

간사 박미성

전차 회의록 낭독을 유인물로 대처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간사 박미성

내용도 보시고 오탏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풍

금번 회의는 교육청 요청에 의한 긴급회의로 안건 1호 안 만 상정합니다?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지풍

동의하셨으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1호 안 학교 설립인가 변경 및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변경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박찬국

특목고지정취소 및 일반고 전환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에 있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1.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장애요인

2. 장애요인 미 해결시 일반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특목고지정취소 후 2024년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1학년은 일반고 재학생, 2~3학년은 특수목적고 재학생으로, 2~3학년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금과 같이 학교장 자율로 받을 수 있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대상 학생으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포함하여 약 150여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학교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상.하수도 철거의 건

2.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

3. 학교운영경비 충당여부등의 쟁점 사항이 이야기 되었고

쟁점 1에 대한 사항으로는 우리측 이사이신 송 교수님과 황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현재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 왜 미래에 혹시라도 패소할것에 대한 걱정으로 소극적 행정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쟁점 2.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법개정 이전 사항은 소급 적용 안됨을 말했지만, 설립자님.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익용 재산을 맞추도록 노력하시겠다 하심과

쟁점 3에 대한 사항으로는 오늘 공탁을 걸었기에 해결된 사항이라고 하였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복합적 연계 검토를 하여 도와주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2차 심의위원회가 16일 1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 우리 성·안나 교육재단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어렵다는 사실도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고 도와주려는 느낌을 받았기에 쟁점 사항들만 잘 준비된다면 이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제시한 안건대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인가 변경안 중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으로 한다.에서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로 변경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 학교가 정상화된다면 학교 운영에 활기가 넘치고 입학하려는 학생들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고 예술고등학교에 맞는 입학전형 요강의 수정과 교육과정도 새로 편성해야 할 것 입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학교를 위해 긴급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지풍

일반고 전환 1차 심의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이진석 위원님이 예산과로 들어가 학교에 어려운 입장과 교직원들의 사기저하로 학생들께 미치는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 현실과 운영비 부족으로 환경개선에 미흡한 상황에서 고스라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수수방관말고 보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의 토론의 장이 였습니다.

1안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으로 한다.에서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에 교장선생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남혜진

일반고 전환이되고 재정 보조금이 확보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위원 이진석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로 빠르게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위원장 이지풍

이상으로 1안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으로 한다의 현행에서 학교수입과 설립자의 부담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로 변경됨의 원안대로 승인하는것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지풍

기타 안건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지풍

안건 심의가 끝났으므로 2023학년도 제3회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 임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석위원: 이지풍 남혜진 이진석 소창섭 박찬국 이성일 김영천(7명 참석)

기록자 : 박미성